

중국산 무차별 수입에 과일 생산...

전남 농수특산물 '고사'

〈枯死〉

- ✓ '완도 납치' 중국산 대량 수입 큰 피해
- ✓ '보성녹차' 생산량 2배 소득 절반 '뚝'
- ✓ '고흥 유자' 과일 생산으로 수출 부진
- ✓ '나주 배' 유례없는 대풍 가격 대 폭락

중국산 저가 농수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 등으로 전남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특산물인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국 최대 생산량(35%)을 자랑하는 '완도 납치(광어)'는 중국산 활어가 대량 수입되면서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양식 납치는 kg당 1만2천원 선이었으나 올해는 8천원 안팎으로 33.3%나 하락해 2000년 이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산 가격의 30%에 불과한 중국산 활어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 배'도 생산량 증가와 유례없는 풍작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평소 4만원대이던 1상차(15kg) 판매가

격이 지난 9월 추세 무렵 2만원 미만으로 폭락, 경매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으며, 1일 현재 1만7천원까지 떨어져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주 배 생산량은 전국의 18%에 달해 이번 가격 폭락은 나주지역 경제 전반에 막무가마를 드리우고 있다.

영광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조기는 풍어와 중국산 둔갑에 따른 신뢰 추락으로 매출은 물론 가격마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전국 최대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보성 녹차'의 경우 판매 소득이 지난 2006년 1천800억원에서 2007년에는 44%나 감소한 1천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생산농가들이 다른 작목에 비해 소득이 높은 녹차의 재배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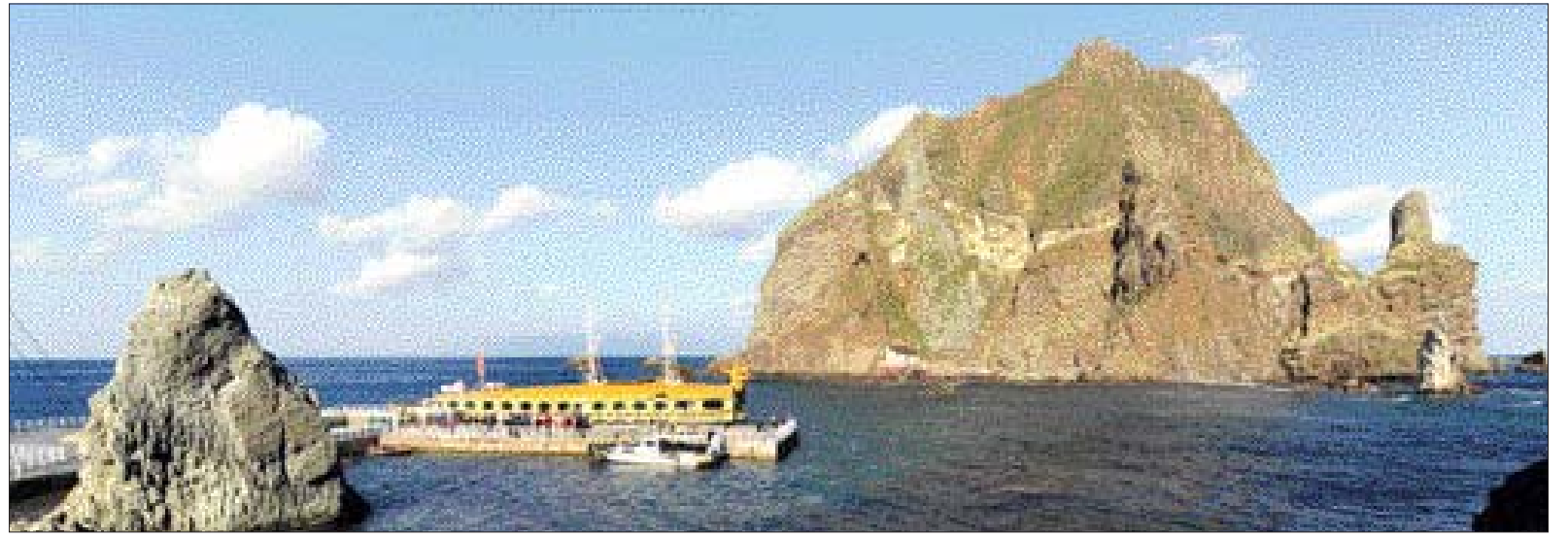
적을 크게 늘려 몇 년 새 생산량·재고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해 가격 하락을 부추긴 데다, 보성 녹차 생잎을 구입해 있던 가공회사들마저 값싼 중국산 생잎을 선호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국 녹차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1천530ha에 불과했으나 2006년 3050ha로 2배가량 증가했다.

수확을 앞둔 '고흥 유자'도 과일 생산에 따른 재고 누적과 수출 부진 등으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흥 유자 재고물량은 유통전문 농업인 H푸드가 2천여, 주산지 농협인 D농협이 1천여, 농가가 600~700여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재고물량은 연간 생산량 6천여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발매가 판매' 등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양복완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해 값싼 중국산들이 밀려들면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전남지역 특산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가와 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고급화, 차별화, 명품화 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충무공 호국정신 '독도 수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혼이 담긴 '울돌목 거북배'가 1일 오전 독도 선착장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거북배'를 타고 독도에 온 전남도 대표단은 이날 독도 현지에서 울돌목과 독도 바닷물을 섞은 합수식과 강강술래 공연 등으로 이어지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가졌다. '거북배'는 해남 울돌목을 떠나 남해, 동해를 거쳐 무려 590km에 이르는 독도까지의 해상 대장정을 이뤄냈다. 사진 왼쪽 섬이 동도, 오른쪽 섬이 서도다. '거북배'는 길이 49m, 폭 10m의 368t급으로, 앞으로 명량대첩 전적지인 울돌목에서 관광객들의 유람선으로 활용된다. <관련기사 8·20면>

중소 저리 자금 광주·전남 '홀대'

4천367억원 배정 ... 부산·경남의 3분의 1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 배정된 액수가 영남 등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총액한도대출 6조5천억원 중 각 지역본부에 배정된 액수는 4조9천5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광주·전남에 배정된 액수는 4천367억원(광주·전남본부 3천581억원, 목포본부 786억원)으로 전체의 8.8%에 불과했다.

이는 대구·경북 8천723억원(대구·경북본부 7천750억원, 포항본부 973억원)과 부산·울산·경남 1조 2천599억원(부산본부 8천400억원, 울산본부 1천401억원, 경남본부 3천158억원)에 비해 각각 2분의 1과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광주은행에 배정된 총액한도대출은 499억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 부산은행(3천977억원), 대구은행(2천610억원), 경남은행(1천840억

▲총액한도대출=연리 3.5%의 저리자금으로 일종의 정책자금 성격을 띠며, 한국은행이 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다.

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광주은행의 경우 배정액이 2004년 1천551억원 이었던 것이 2005년 705억원, 2007년 512억원 등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은행의 입장에서 저리의 정책자금을 많이 받을수록 자금운용에 여유가 생겨 중소기업 대출 확대는 물론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은 그만큼 절실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지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黨政 “중소에 4조3천억 원 추가 지원”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4조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이 4조 원 늘어난다.

통화과생상품 '키코'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신규 대출이나 출자 전환 등을 하며 여기에 특별 보증을 하게 된다. <관련기사 4면>

당정은 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의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3천억 원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이 연말까지 중소기업의 회사를 인수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을 1조 원 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 규모를 4조 원 늘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내년 6월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키코 손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손실액을 감할 수 있는 신규 대출이나 출자 전환,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연습스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廣告

'월요광장'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대표 칼럼 '월요광장'의 필진이 6월부터 새로 바뀝니다. 광주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지역개발 등 각계 전문가 4명을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새 필진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를 전문지식과 해안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하동만 원장	장성민 대표	박석두 위원	조기인 지원장

- ◇하동만 전남발전연구원장
 - ▲진도 출신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제13회 행정고시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총괄과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특허청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 ▲고흥 출신 ▲서강대 대학원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 ▲16대 국회의원 ▲미국 듀크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저서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 ◇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 연구위원
 - ▲영암 출신 ▲서울대 농대·고려대 대학원 농경제학과 박사 ▲저서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 ◇조기인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 ▲나주 출신 ▲외국어대·연세대 경영대학원 ▲금감원 감사2팀장,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장

광주일보사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충무공이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진북경 정계서비스 프리드

효인병원